

2月20日付 ハンギョレ16面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누리집에서 검색한 오봉길 의사에 관한 자료들은 의사의 사칭이 걸려있는 모습(왼쪽)과 관련 문서 사진.

근대일본 공문서 보고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연구자 기다리는 '1430만건의 진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일 근대사 공문서 자료를 검색해 보면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가 결코 허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자가 방문한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www.jacar.go.jp)의 무타 쇼헤이 조정전문관은 이 센터의 존재 의의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국 연구자들의 적극적 이용을 당부했다.

7년전부터 극비문서 디지털화

누리집 공개 "한국도 활용하길"

2001년 11월 독립행정기관으로 발족한 이 센터는 메이지 정부 초기부터 2차대전 패망 때까지 일본 정부의 기밀 외교문서 등 공문서를 디지털화해,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 등 주변국들과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본 정부가 불리한 역사자료도 숨김없이 공개하고 있다. 한-일 근대사 자료의 보고인 셈이다.

이 센터의 설립은 "이웃나라와 관계된 역사를 직시하려면, 역사연구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의 담화가 기초해 추진됐다. 7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개설된 이 센터는 국립공문서 도서관, 의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

연구소도서관 등 세 정부 기관에 소장된 근현대 공문서들을 매년 15만~20만건(250만~270만 화상)의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천만 화상에 이르는 전체 자료의 디지털화는 4~5년 뒤 끝날 예정이다. 지금 제공되는 화상은 1430만건이다.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조선 한국'이란 열쇳말을 넣으면, 자료 4만5613건이 뜬다. '양봉길 집행'이란 말로 검색하면 31건이 나온다. 맨 마지막에 윤 의사의 처형 사진이 포함된 '극비' 자료가 뜬다.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검색에는 한계가 있다. 당시 일본 정부와 군부가 위안소, 군위안소 중첩부 등 사실관계를 도도하는 용어를 썼기 때문이다. 자료센터는 공문서에 있는 용어와 이용자가 검색에 사용하는 용어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사전기능'도 제공한다.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펴고 있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국방장관 시절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디지털화 작업을 재촉하는 등 공문서 보관·관리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80대의 고령에도 폭도 연구를 위해 해마다 몇차례 방일해 국립공문서 도서관을 뒤지고 있는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은 "일본을 제대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문서 자료를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연구자의 분발을 촉구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sip209@hani.co.kr

「研究者を待っている『1430万件の真実』」（キム・ドヒョン東京特派員、東京発）

（小見出し）近代日本の公文書の宝庫「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で韓日近代史に関する公文書の資料を検索すれば、日本軍慰安婦の実態は決して虚像ではないことが分かる」。

先月末、記者が訪問した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のムタ・ショウヘイ調整専門官はこのセンターの存在意義をこう説明しつつ、韓国の研究者らによる積極的な利用をお願いした。2001年11月に独立行政法人として発足したこのセンターは、明治初期から第二次世界大戦の敗戦までの日本政府の機密外交文書等、公文書をデジタル化し、オンラインを通じて無料で提供している。韓国等の周辺国と歴史的事実を共有することが何よりも重要だとの判断から、日本政府に不利な情報も隠さずに公開している。日韓近代史の宝庫と言えよう。

このセンターの設立は、「隣国と関係のある歴史を直視するためには、歴史研究を支援する事業が必要である」という1994年当時の村山総理の談話に基づいて進められた。7年間の紆余曲折の末に開設されたこのセンターは、国立公文書館、外務省外交史料館、防衛省防衛研究所図書館の3つの政府機関が所蔵している近現代の公文書を毎年15万～20万件（250万～270万画像）ずつデジタル化する作業を行っている。3千万画像にもなる資料全体のデジタル化は4～5年後には終了する見込みだ。今現在提供している画像は1430万件。

ホームページの検索欄に「朝鮮 韓国」という検索後を入力すれば、4万5613件の資料が出てくる。「尹奉吉 執行」という言葉で検索すれば31件が出てくる。最後に尹義士が処刑される写真が含まれる「極秘」の資料も出てくる。日本軍慰安婦の資料検索には限界がある。当時の日本政府や軍部が、慰安所、軍慰安所総業部等、事実関係を歪曲する用語を使っていたためである。資料センターは公文書の用語と利用者が検索に用いる用語の間のギャップを埋めるため、「辞書機能」も提供している。

アジア重視政策をとる福田総理は、官房長官時代に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のデジタル化作業を進める等、公文書の保管や管理に大きな関心を示していたことで知られている。80代の高齢にも拘らず、独島（ママ）研究のため、毎年数回訪日し、国立公文書館を訪問しているチェ・ソミョン国際韓国研究院長は、「日本と真正面から相對するためには彼らの公文書資料を積極的に研究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韓国人研究者の奮起を促した。